

※본 보고서는 대전·충청권 행정협회의 보고서 「충청권 공동발전방안 연구」 2000.7을 기반으로 연구자가 일부 수정·보완한 것임

충청권 종합발전 구상[안]

- 산업경제편 -

‘07. 4. 19

강 영 주

【 목 차 】

I. 추진 필요성 및 충청권 발전과제	1
1. 추진배경	1
2. 지역여건 분석	3
3. 충청권의 발전과제	9
II. 발전방향 및 추진전략	10
1. 발전방향	10
2. 추진전략	10
3. 추진사업	10
III. 전략별 추진사업	11
1. 집적기반의 강화	11
2. 지역자원의 공동이용 및 관리	15
3. 신기술 창업지원 및 중견기업 육성	22
4. 역외 투자 및 기업의 공동 유치	25
5. 협력네트워크 및 협력문화의 확산	29
6. 협력적 추진체계의 구축	33
IV. 충청권 공동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	35

I. 추진 필요성 및 충청권 발전과제

1. 추진 배경

세계화·지방화·정보화·환경중시 가치관 등 지역발전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고, 대중국교역의 증대, 서해안 고속도로 및 고속전철 건설과 수도권 기능분산 등 외부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충청권의 발전잠재력을 극대화시킴

□ 국토중심지 기능 강화

- 충청권은 도로, 철도 등 국가간선교통망의 중간결절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1세기 고속전철 건설, 초고속정보망의 구축,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에 따라 국내지역간 물류유통의 주요결절지역으로서 명실상부한 국토중심지의 기능수행이 기대되고 있음.
-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통해 국가 충추기능의 집적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충청권은 국토의 중심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물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수도권기능의 계획적·체계적인 수용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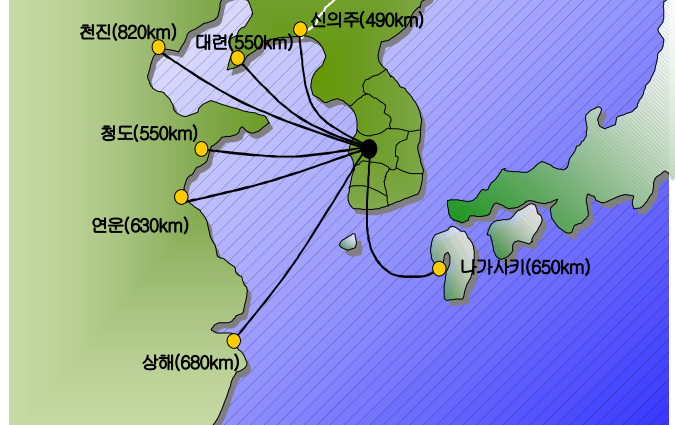
□ 과학기술 산업수도화에 따른 첨단·지식산업기반 확대 전망

- 충청권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산실인 대덕R&D특구를 중심으로 고도의 두뇌집단과 시설이 집적되어 있고, 천안, 청주를 중심으로 벤처기술산업이 집중되어 있어 새로운 과학기술산업지대로 등장하고 있음.
- 따라서 충청권은 향후 지속적인 과학기술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지역혁신체제의 도입, 전문고급두뇌들의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정주여건 조성, 전문인력의 육성, 과학과 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 등을 추진하여야 함.

□ 환황해경제권의 부상과 충청권의 위상변화

- 충청권은 지리적인 위치와 서해안 거점항만 조성으로 환황해경제권의 주요한 교류거점으로서의 기능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대중국교류와 교류증대는 서해안의 역할증대와 함께 충청권을 環황해권의 소핵으로 투자 잠재력을 흡수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하는 거점(Hub)으로서 부각시킬 것임

- ※ 중국의 연평균('84~'04) 경제성장률 : 15%
- ※ 중국의 1인당 GDP(구매력기준)는 1.3만달러('14), 중산층(1억9천만명)의 경우 3.9만달러('14)에 이를 전망(ADB, '04)



〈그림1〉 충청권과 주변지역과의 관계

□ 정보·고속화의 진전과 광역적 정주체계 등장

- 도시중심의 경제·사회활동의 광역화는 광역적 교통망 및 공급처리시설의 건설과 각종 광역서비스의 공급을 요구하므로, 이를 위한 광역행정관리체제의 정비가 필요함

□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문화 및 환경적 욕구증대

- 21세기 지역개발수요는 지역문화 및 여가활동 촉진, 환경적 질적 수준개선, 주거환경 등 삶의 질 측면이 중시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여유로운 삶과 문화적 욕구의 증대에 따라 충청권이 지니고 있는 역사문화자원의 보전과 함께 역동적인 산업기반으로 육성하는 노력이 요구됨

2. 지역여건 분석

충청권 전체에 걸쳐 경제 및 산업활동에 급격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있음. 대덕 R&D특구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가시화되고, 청주공항, 당진·평택항, 오송KTX역, 탕정 단지, 오송·오창 과학단지 등 산업인프라가 완료되면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됨

1) 인구규모

- 2005년을 기준으로 충청권의 인구는 484만 명으로 전국의 10%를 점하고 있음. 지역별로 대전과 충남은 인구가 성장하고 있으나 충북은 2001년을 기점으로 소폭 감소

〈표1〉 충청권 인구규모

(단위 : 명, %)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전국	47,353,519	47,615,132	47,847,227	48,082,163	48,294,143
충청권	4,795,350 (10.13)	4,799,734 (10.08)	4,807,638 (10.04)	4,835,601 (10.05)	4,848,366 (10.04)
대전	1,417,873 (2.99)	1,433,881 (3.01)	1,453,994 (3.04)	1,463,767 (3.04)	1,458,269 (3.02)
충북	1,499,090 (3.17)	1,495,165 (3.14)	1,490,142 (3.11)	1,490,344 (3.10)	1,487,359 (3.08)
충남	1,878,387 (3.97)	1,870,688 (3.93)	1,863,502 (3.89)	1,881,490 (3.91)	1,902,738 (3.94)

자료 : 과학기술부, 지방과학기술연감, 2005. 재정리

2) 지역내 총생산

- 2004년 기준으로 충청권 지역의 지역내 총생산은 87조2,050억원으로 전국의 11.1%를 차지. 연차별로 꾸준한 증가세(1990년에 9.2% 수준 2000년 11.1%)

〈표2〉 충청권의 지역내 총생산 비교

(단위 : 10억원)

구 분	1990	1995	1998	2000	2002	2004
전 국	194,546	410,131	479,824	577,971	685,946	786,362
수도권	91,310 (46.9)	195,804 (47.7)	221,734 (46.2)	276,516 (47.8)	334,248 (48.7)	372,262 (47.3)
충청권	17,987 (9.2)	40,928 (10.0)	50,287 (10.5)	62,043 (10.7)	71,941 (10.5)	87,205 (11.1)
대전	4,711	9,560	11,423	13,559	16,046	18,550
충북	5,931	14,038	16,074	19,521	21,500	25,419
충남	7,345	17,330	22,790	28,963	34,395	43,236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http://kosis.nso.go.kr>)

3) 산업구조

- 대전은 3차산업이 80.6%로 서비스 산업 비중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충북과 충남은 2차산업 비중이 높음(각각 40.4%, 42.0%)

〈표3〉 충청권 지역의 산업구조(부가가치 기준)

(단위 : %)

구 분	대전		충북		충남	
	2000	2004	2000	2004	2000	2004
1차산업	0.5	0.4	8.6	6.6	12.2	8.9
2차산업	21.3	19.0	40.6	40.4	39.1	42.0
3차산업	78.2	80.6	50.8	53.0	48.7	49.1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http://kosis.nso.go.kr>)

4) 지역특화 및 전략산업

(1) 충청권 특화산업

- 종사지수와 부가가치 모두에서 특화되어 있는 산업(LQ>1.0이상)은 음식료품제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기타전기기계및

전기변환장치제조업,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의료,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임

〈표4〉 충청권 산업특화도 분포

구분		종사자 기준 특화도		
		매우 높음	비교적 높음	낮음
부가가치 기준 특화도	매우 높음	음식료품제조업 펄프,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화합물및화학제품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고무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재생용가공원료생산업	섬유제품제조업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제1차금속산업 조립금속제품제조업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컴퓨터및사무용기기제조업
	비교적 높음		기타전기기계및전기변환장치제조업 전자부품,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낮음			봉제의복및모피제품제조업 가죽,가방및신발제조업 출판,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코크스,석유정제품및핵연료제품제조업 기타운송장비제조업 가구및기타제품제조업

주 1 : 2004년 제조업의 산업 중분류별 현황자료를 근거로 분석하여 가공함

주 2 : 매우 높음은 특화계수가 2.0 이상을, 비교적 높음은 1.0 이상 2.0 미만을, 낮음은 1.0 미만을 가리킴

(2) 지역전략산업

- 대전광역시의 전략산업 4대 분야는 정보통신산업, 생물산업, 첨단부품 및 소재 산업, 메카트로닉스 산업이며, 충남은 전자정보기기산업, 자동차 부품산업, 첨단문화산업, 농축산바이오산업임. 충북은 바이오산업, 반도체산업, 이동통신 산업, 차세대 전지산업임.
- 충청권에서 선정한 지역전략산업은 IT산업과 BT산업으로 특징지워지며, 산업간 기술적 연계성이 매우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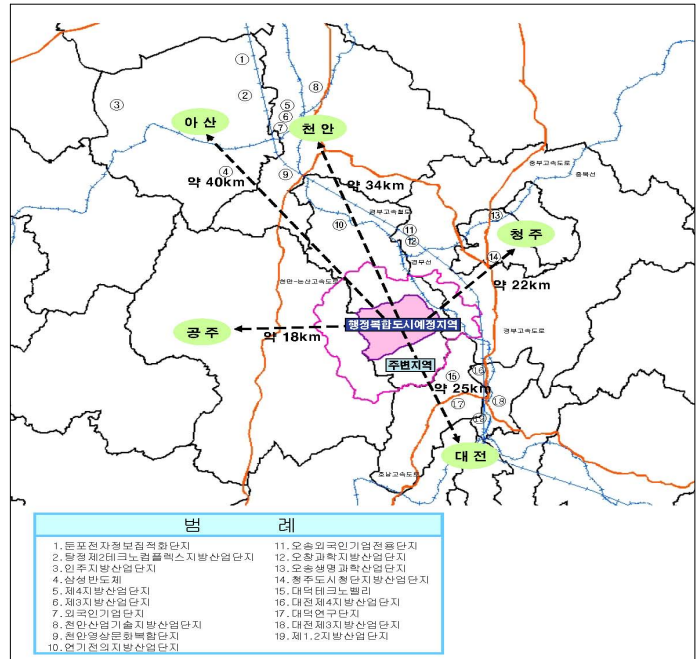
〈표5〉 충청권 전략산업

구분	전략산업	주요사업	
충남	전자정보기기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스플레이 특화기술개발사업 디스플레이산업 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 크리스탈 교역전 개최
	자동차 부품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첨단자동차부품 R&D집적화 센터 미래형 첨단자동차개발사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첨단자동차부품기술 연구개발사업
	첨단문화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설립 영상미디어사업화 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첨단 문화콘텐츠산업 특화기술개발사업 지원
	농축산 바이오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이오산학협력단 인삼약초바이오식품 사업화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산바이오테크노파크 조성
충북	바이오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이오신약장기, 기능성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이오통합지원사업
	반도체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스템 IC기술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세대 메모리반도체육성
	이동통신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비쿼터스네트워크 기술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동통신단말기용 SW지원
	차세대전자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소재부품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제조기술개발
대전	정보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IT전용벤처집적타운 건립 대덕밸리소프트타운 운영사업 대덕밸리소프트타운 마케팅지원사업 u-IT839시장창출지원사업 IT분야 선도기업지원사업 대덕 IT 포럼운영 대덕밸리 IT협력 네트워크사업 IT CEO 전략커뮤니티 구축운영사업 국내외 유명인증취득지원사업 대전 특화 IT 클러스터 협의체 운영 국내외 협력마케팅 지원사업 첨단기술사업화시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베디드SW시장진출 시범사업 대전지역 IT/SW육성전략 및 로드맵 구축사업 정보통신분야 전문가 양성 및 위탁교육 IT산업 Global 유통 및 마케팅 Digital, HD영상 및 2D, 3D콘텐츠 개발지원 대덕연구단지 영상타운 건립 DMB 시범방송 시스템 구축 차세대 이동통신 클러스터 조성 인터넷 실시간 게임개발 지원 전자상거래 및 웹기반 플랫폼 개발지원 평판 디스플레이 센터 건립 RFD/Ubiquitous 지원사업
	생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이오 벤처타운 조성 암 r&d 전문센터 사업 바이오산업 선진화지원센터 설립 바이오 글로벌 지원센터 설립 우수의약품 인증지원센터 설립 생물산업클러스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이오산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생물산업전문대학원설립 게놈시스템 구축을 통한 분자표적사업 나노바이오 정보전자 연구센터 설립 건강기능식품 효능 및 안전성 평가센터 설립
	첨단부품 및 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노 종합fab센터 구축 에너지/신소재 평가분석센터 설립 신소재부품 생산지역업체 글로벌 마케팅 지원 차세대전자 신소재부품 성능분석평가 사업 차세대 전자분야 전문가 양성 및 위탁 차세대전자/신소재 부품 생산시설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소재부품산업 집적단지 조성 에너지/신소재 실용화센터 구축 소재평가 및 분석센터 건립 차세대전자 신소재 부품기술 연구개발 지원 소재평가 및 분석센터건립 나노 SoC개발센터 구축
	메카트로닉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능 로봇사업화센터 지능로봇분야 전문인력양성 교육실시 지능형로봇 표준화 및 공동마케팅 구축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전략로봇개발 기술연계 사업화 전통/첨단기술융합 지원시스템 구축

5) 산업집적시설

- 2004년 한국산업단지총람에 따르면 충청권에는 국가지방산업단지 4곳과 48개의 지방산업단지가 있으며, 면적은 총 88,791천㎡임.

- 충청권의 총 52개 국가·지방산업단지 중 20여개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를 중심으로 반경 40km 범위 내에 입지하고 있음. 산업단지 내에는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등 첨단



〈그림2〉 충청권 산업단지의 입지분포

전자정보기산업과 바이오 산업, 벤처기업들이 집중 분포하여 있고, 주변에는 대덕 연구개발단지를 비롯하여 4년제 대학이 대전, 천안, 아산, 청주시에 밀집되어 있어 고급인력과 기술을 상시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최적의 입지적 요건을 갖추고 있음

6) 벤처기업

- 벤처기업은 아이디어와 기술력에 기초한 창업기업으로서 지역의 연구개발 역량을 대표하는 지표라 할 수 있음. 2005년 충청권 벤처기업은 총 891개로 대전이 410개로 46%를 차지하고, 충남이 257개로 28.8%, 충북이 224개로 25.1%를 차지함. 업종별로는 석유 화학제품 등 제조업이 176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기계제조업 108개, 비금속 및 금속제품 제조업 83개,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82개, 소프트웨어 지문, 개발 및 공급업이 74개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6〉 충청권 업종별 벤처기업 현황(2005. 12. 31 현재)

업종	업체수			합계
	대전	충북	충남	
농업 및 임업, 어업	-	3	4	7
음식료품, 담배, 목재, 나무제품 등	12	25	24	61
석유, 화학제품 등 제조업	63	52	61	176
비금속 및 금속제품 제조업	22	31	30	83
기계제조업	51	18	39	108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제조업	6	3	1	10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11	18	19	48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36	26	20	82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제조업	42	7	7	56
방송수신기 및 기타영상, 음향기기제조업	4	2	1	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34	12	15	61
자동차 및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4	8	19	31
가구 및 기타제조업 및 재생재료가공처리업	3	2	5	10
건설업	3	4	1	8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1	-	1	2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62	7	5	74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2	1	-	3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2	-	-	2
연구개발업 및 기타사업관련 서비스업	27	4	4	35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6	-	1	7
합계	410	224	257	891

3. 충청권의 발전과제

- 국제업무, 중추관리·전문서비스기능의 취약
 - 정보통신·금융, 컨설팅 등 전문서비스와 무역, 국제업무, 대기업본사 등 경제적 중추관리기능 미비로 자립경제기능이 취약
- 동서간선축 부재와 거점간 접근성 제약으로 권역내 불균형 심각
 - 충청권내 동서간 간선교통축 부재와 주요거점지역간의 접근성 제약으로 권역내 불균형이 심각하여, 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시책추진이 요구됨
- 실질적 협력체계의 운영미흡 및 제도적 제약
 - 광역연계 및 협력체계의 실질적 운영미흡, 행정구역단위의 예산, 개발 추진 지원 등 제도적인 제약성을 지니고 있음
- 지역산업의 쇠퇴화 및 지식산업화 실현 지연
 - 충청 북부권이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이전기업의 무분별한 수용과 기존산업의 재구조화 지연으로 지역산업의 쇠퇴가 가속화 되고 있고, R&D특구 연구성과의 지역기업 이전 장애로 지역산업의 경쟁력 상실 이 우려됨
- 수요대응적 산업 및 도시개발로 혼잡 및 난개발 초래
 - 충청권 북부지역의 수도권 이전수요 증대, 서해안의 산발적 산업·도시개발에 대한 체계적 대응 부재로 난개발 초래가 우려됨. 대전~청주 등 충청권의 중심대도시권과 중앙부는 국가 간선 교통시설 및 산업시설 집중으로 혼잡과 과밀이 우려됨
- 자치단체의 경합적인 개발사업에 따른 막대한 재원부담과 손실
 - 자치단체간 경합과 공급위주의 과다한 사업계획으로 인한 수요 부족으로 사업중단, 투자비 회수불능 등 부실의 가능성이 있음

II. 발전방향 및 추진전략

1. 발전방향

- 충청권은 과학과 첨단기술의 산실인 대덕R&D특구, 오송 바이오 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금융, 컨설팅 등 전문서비스와 무역, 국제업무, 대기업본사 등 경제적 중추관리기능 미비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이루지 못함.
- 또한 수요대응적 산업 및 도시개발로 난개발을 초래하고, 자치단체간의 과도한 개발사업의 경합으로 막대한 자원부담 및 손실이 발생함. 이를 해소하고 장차 국가 경제의 중심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충청권 초광역 클러스터의 구축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함

2. 추진전략

- 지역고유의 산업발전 잠재력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전문기능과 개발전략을 제시하고, 이들 상호간의 보완·연계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네트워크화 및 경쟁력있는 혁신클러스터 기반을 형성토록 하기위하여 다음의 다섯가지 추진전략을 수립함.

- ① 집적기반의 강화
- ② 지역자원의 공동이용 및 관리
- ③ 신기술 창업지원 및 중견기업 육성
- ④ 역외 투자 및 기업의 공동유치
- ⑤ 협력네트워크 및 협력문화의 확산
- ⑥ 협력적 추진체계 구축

Ⅲ. 전략별 추진사업

1. 집적기반의 강화

1) 기존산업단지 정비 및 고도화 추진

- 충청권내 기존 공단을 정비하여 혁신클러스터로 고도화하고, 전략산업별 집적지구를 설정하여 연관산업별 집적을 강화함
- 1단계에서는 대전 및 청주, 천안의 산업단지 등 도시내 기존공단의 첨단·디지털화를 추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초고속정보망의 우선 구축 및 주요 산업단지내 기업정보화 지원센터의 설립 등을 추진
- 2단계로는 산업단지 첨단화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별 집적지로 육성
 - 천안·아산~청주·청원간 생산연계벨트(IT 및 디스플레이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청주공항으로의 항공물류를 강화하고 IT와 BT가 융합한 새로운 형태의 산업을 집중 육성)
 - 천안·아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반도체, 반도체장비, 전자정보기기 산업 집적을 청주·청원 중심의 의약품, 생명산업, 기타화학물의 원부자재 확보 및 생산·공정과정에서 보완·연계 가능하도록 중규모 산업집적으로 형성해 가기 위해 관련 산업의 집적을 유도하고, 집중 육성하여 첨단기술벨트(highway valley)를 구축
 - 대덕~행정도시~주변지역간 첨단산업벨트
 - R&D특구 인접지역에 국제업무 및 비즈니스업무를 담당하는 500만 평규모의 집적지구(국제비즈니스스마트타운)를 건설하여 R&D특구와 행정중심복합도시와의 연계발전을 가능케함.
 - 생산기능강화를 위하여 주변지역에 첨단 산업 물류, 첨단 국방 산업 기계 제조업, 생명화학 산업별로 업종별 분산 집적을 유도
- 3단계에서는 중규모 집적의 연결을 강화하여 단일 혁신클러스터로 육성

2) 접경지역 신규 스마트산업단지 조성

(1) 국제비즈니스 스마트 타운 조성(국제비즈니스타운 + 생산시설)

□ 개 요

- 국제비즈니스타운과 생산시설을 복합한 복합산업집적지구 조성
- 위치: 충남과 대전 행복도시 인접 중심 지역
- 면적: 500만평 규모

□ 필요성

- 국제화 기능 보완
 - R&D특구 내에는 건립 예정인 컨벤션센터 외에 특별한 국제화 지원시설이 전무(외국업체와 외국연구소도 없고, 연구인력의 0.8%인 95명만이 외국인 연구원)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산업기능 보완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산업기능은 전체의 1%로 이조차 본사기능으로 지방이전이 불확실해 인접지역에 국제업무 및 비즈니스업무 뿐 아니라 생산시설이 입주하는 복합산업집적지구를 건설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 국제업무기능 확충
 - 중소기업 전시컨벤션 센터, 국제비즈니스센터 등을 건설하여 R&D 특구 및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계한 국제비즈니스 기능을 확충
- 혁신산업단지조성
 - 비즈니스 기능, R&D 기능, 산업기능이 복합된 신개념 산업단지의 조성

○ 다국적기업 및 국내 대기업 본부 유치

- 다국적기업 및 국내 유명 대기업의 본사 및 지사, 금융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자금지원, 법인세감면 등의 행·재정지원

○ 외국인 투자 환경 조성

- 아일랜드식 외국 기업 유치팀을 결성하고 기업유치를 위한 권한을 일원화시켜 교섭력 강화
- 언어나 교육, 정주여건 등의 개선을 위한 외국인 거주지역별도지정. 외국인 전용 교육기관 및 외국기업 지원센터 설치
- 국제화 행정(도로교통표지판, 행정서류 등의 외국어 번역 및 통역, 관광안내소의 설치, 외국기업 대응팀의 설치 등)과, 국제화 교육을 통한 지역의 국제화 수준 향상.
- 국제 정보제공시설 또는 외국 문화관 운영.
- 외국기업, 외국연구소와 지역주민들간의 교류를 위한 사회복지·지역 문화교류프로그램 개발
- 외국 인력의 원활한 활용을 위한 출입국제도 개선

□ 기대효과

○ 행정중심복합도시, R&D특구, 오송바이오밸리와의 연계발전

- 스마트타운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을 보완함과 동시에 R&D특구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발전의 거점이 될 것임

(2) 의료 스마트타운 조성(의료복합단지 + 생산시설)

□ 개요

-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여 신약의 처방과 신규 치료행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 하는 특구를 조성하고 국내외 우수 의료기관을 유치함
- 위치: 충남과 충북 접경 지역으로 천안·아산과 청주·청원을 연결하는 지역
- 면적: 200만평 규모

□ 주요내용

-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
 - 『제약+의료기기+의료서비스』가 결합된 의료 복합단지
- 신약의 처방과 신규 치료행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 하는 특구 조성
- 국내외 우수 의료기관 유치
- 충남과 충북 접경 일부 지역을 포함하여 연구기관, 기존 지역 의료기관, 기타 신규 의료·요양 기관이 입주하는 복합적인 의료지구 조성
- 연구소—임상기관—제약기업—의료기기업체—병원 등 「의료클러스터」 형성
- 연구개발·주거·교육 인프라 및 휴양·관광시설과의 연계

□ 기대효과

- 의료서비스의 수도권 편중현상을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 기대

2. 지역자원의 공동이용 및 관리

- 충청권내 3개 시·도지역이 공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산업자원을 공동으로 이용·관리함으로써 규모의 경제성,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거대집적경제단위인 수도권 및 기타 국내외 지역과의 경쟁에서 우위성을 확보함.
- 단계별 추진방안
 - 1단계: 충청권내 대학, 연구소 등 관련기관간 정보네트워크 구축
 - 지역간 상호교류는 전문가간의 정보교류에서 시작함. 이를 위하여 충청권내의 대학, 연구소 등 관련기관간의 정보네트워크화를 추진.
 - 2단계: 설비 및 자원의 공동활용
 - 두번째 단계에서는 설비 및 자원의 공동활용을 추진함
 - 3단계: 기술의 공동개발과 활용
 - 네트워크 연결대상거점은 주요 산업단지와 대학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등으로 하며, 대학연구소의 경우 지역연구협력센터 등 산·학·연 공동개발 기능이 발달한 기관을 우선으로 연계

1) 지역간 인력·정보연계 시스템 구축

□ 개요

- 대전은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충청권내 기초분야의 지식 및 기술 관련정보(know-why, know-what)의 공급중심지 기능을 수행하며, 충청남도과 충청북도는 기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생산현장의 경험을 통해 축적된 생산기술관련 지식의 공급기능(know-how)을 담당함으로써 지역간 지식의 상호교류에 의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 주요내용

○ 동종·이종간 광역교류회의 설립

- 동종·이종간 광역교류회(IT, BT, NT, IBT 등 클러스터)를 조직하고, 회의나 세미나 등을 정례화함으로써 기초지식분야 및 경험지식분야의 보완이 가능하도록 추진. 특히 교류회에서는 기술관련 세미나를 확대함.
- 세미나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광역교류회는 연간 또는 분기간 일정표를 가지고 운영하고, 세미나의 대상기술은 기업의 수요조사 등을 토대로 하여 현장에서 요구되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주제를 선정하는 방식을 취함
- 기타 IT, BT, NT, IBT 등 충청권 전략산업에 대한 로드맵(TRM)을 공동으로 작성하여 사업의 중복투자 방지 및 사업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도모함
- 충청권의 중소기업지원기관의 광역협의체를 구성하여 각 지원기구간 통합적 지원서비스를 공급하는 정보공유 및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토록 함
 - 충청권 기업의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 애로사항 해결 등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 충청권 기업의 발전전략 수립
 - 국내외 산업기술, 인력교류, 수범사례 연구
 - 국내외 특허동향, 투자정보 조사 분석 및 마케팅 전략수립
- 지방자치단체는 산·학·연 프로젝트의 추진시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을 충청권 전역으로 확대 적용하여 광역교류활동을 촉진하고, 지역내 대학과 연구소 등 관련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기술인력 및 산업계의 기술·기능 인력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활용함

○ 전문인력 풀(pool)제의 도입

- 충청권내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전문기술분야의 인력정보망을 구축

하고, 전문인력 및 산업·기술분야의 자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고급전문인력 네트워크 중개기구」를 설치

- 기존의 인력풀 제도가 지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관에 따라 분산된 인력풀 제도의 운영을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 전문분야의 기술자문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대학교수, 지역산업계의 대표, 정부기관 등 명망가 중심체제에서 벗어나 현재 기업을 운영 중이거나 기술개발 및 생산현장의 경험이 풍부한 인력들을 활용함

2) 설비·기자재의 지역공동활용체계 구축

□ 개요

- 충청권내 대학이나 연구소가 보유한 고가기자재들은 규모경제의 문제로 인하여 개별기업이 보유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음. 이에 대한 접근성 개선은 지역내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러한 점에서 지역차원에서 연구기관이 보유한 고가장비를 지역기업이 공동활용이 용이해지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 충청권 고가기자재 공동활용 지원제도 도입
 - 기관별 고가장비의 대외개방을 촉진하되, 대외개방시 손·망실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원제를 기반으로 고가장비공동활용회를 구성하고, 장비의 훼손·분실 등 피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하는 방안 등을 강구
 - 장기적으로 기업의 고가설비 수요를 조사하여 활용가능성이 높은 기기의 경우 대학, 연구소 및 기타 산업지원 관련기관의 구입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

○ 중점기술개발지원센터설치

- 중점기술개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정부추진사업에 의해 구입된 각 대학 RIC 등에 소재된 고가장비 중 단독 유지보수가 어려운 장비들을 기관간 MOU 체결을 통해 중점기술개발지원센터에 집적시키고, 중점 관리하여 장비활용의 효율성을 높임

3) 충청권 산업정보망 공동구축

□ 개요

- 충청권내 기업간 협력과 제휴를 촉진하기 위하여 충청권 종합산업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용. 산업정보망의 구축을 위하여는 분야별 전문인력, 고가기자재, 기술정보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와 기업간 네트워크화를 추진함
- 충청권 산업정보망 구축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지역상공회의소 등 지역산업협회나 대학 등 민간부문 중심으로 구성·운영하여 정보활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촉진토록 유도함

□ 주요내용

○ 분야별 전문 산업정보망의 구축과 네트워크화 추진

- 산업정보망은 지역내 기업정보망, 인력정보망, 지원정보망 등으로 전문화하여 구축하여 기업간 기술·생산, 판매연계를 촉진하고, 지역내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
- 민간주도의 산업정보망 구축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강화
 - 산업정보망은 기초정보 및 부가가치 정보를 공급하게 되므로 수익성을 보유하고 있고,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므로 민간경영에 의한 구축·운영이 필요함. 단, 초기단계에는 수익성이 취약하므로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이 필요

○ 지역산업정보의 표준화 및 충청권 통합 경제정보센터 구축

- 지역내 다양한 산업정보산업의 육성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산업 정보의 표준화 및 호환성을 강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충청권 통합 경제정보센터를 구축함
- 기업간 전자상거래 및 사이버 무역 활성화를 위한 통합전자상거래지원센터 구축
 - 기업내 기업간 원·부자재구매, 기술 및 생산연계를 촉진할 수 있는 지역 전자상거래망(B2B) 구축지원을 강화. 기업의 e-business화, 전자상거래, 사이버 무역관련 컨설팅, 직원교육, 전문가 양성 종합적 산업 정보지원센터의 기능을 수행토록 함
- 충청권내 기업간 전자상거래(B2B) 활성화 지원
 - 기업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지역내 기업의 생산품에 대한 정보, 전자상거래 관행의 확립, 그리고 거래의 신뢰성 증진을 위한 제품인증제도 등을 도입

4) 통합기술이전체계의 구축

□ 개요

- 기술이전의 활성화는 대학이나 공공연구소 등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능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상업기능을 효율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기능을 함
- 지역내 기술이전체계 확립과 기술이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의 상업적 가치를 판단하고 기술소유자와 수요자의 수요를 조정할 수 있는 중개자(벤처캐피탈)의 육성이 필요함. 아울러 이전대상 기술에 대한 정확한 정보공유시스템을 광역적 차원의 협력을 통하여 구축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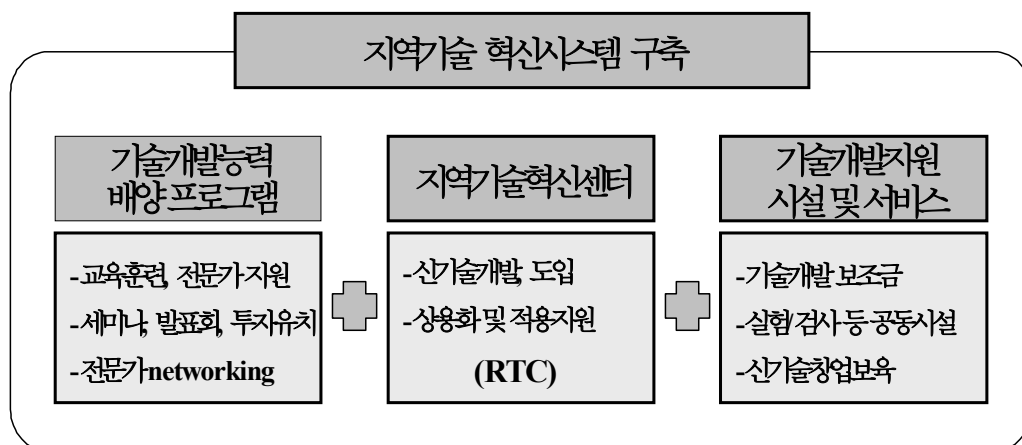
□ 주요내용

○ 충청권의 기술이전촉진을 위한 통합 TLO 구축

- 신기술 정보, 신기술도입 및 확산, 신기술 활용 등을 지원하는 충청권 통합TLO(Technology Liason Office) 구축
- 현재 각 대학 및 출연연구기관별로 구축되어 있는 TLO가 단독으로 생존가능한 손익분기점에 다다르지 못함에 따라, 이를 충청권 전체로 통합하여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전문가(기술마케팅)를 지원하여 기술이전의 활성화를 도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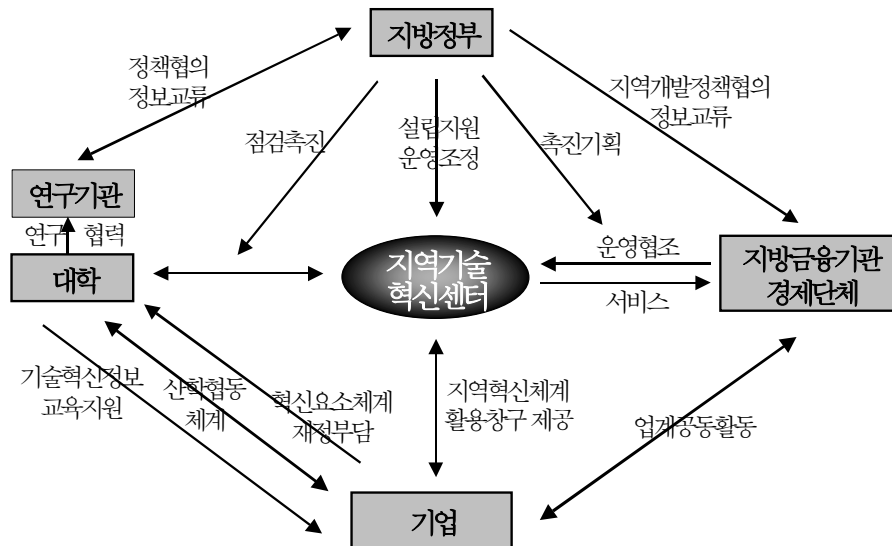
○ 충청권 기술이전센타의 공동설치

- 3개 시·도 공동출자 및 중앙정부 지원으로 설치



〈그림3〉 지역기술혁신센터 개념도

- 장기적으로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기술혁신센터로 육성
 - 지역기술센터는 기술개발, 신기술도입 및 이전지원 역할과 함께 지방기업의 기술개발능력 강화 프로그램의 운용 및 기술개발지원 시설과 지원 서비스의 공급체계를 동시에 구비하여 지역혁신의 선도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그림4〉 지역기술혁신센터 기능 모형도

○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공동기술개발 지원체계 확립

- 지방자치단체가 주도가 되어 연구기관과 산업간 교류기회의 확대를 추진하도록 산·학·연간 협의체, 세미나 포럼의 개최를 활성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지원 공동기술개발 사업의 선정 등 지역기술산업정책 수립에 기업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도록 함.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각 지자체 예산중 연구개발비 규모의 확대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산·학·연 연계과제를 우선 지원대상으로 함으로써 산업계와 연구기관의 기술개발 협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함

3. 신기술 창업지원 및 중견기업 육성

- 충청권 산업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보, 통신 및 첨단기술 등 새로운 지식 기반산업의 육성과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지역의 전반적인 기업 가정신(entrepreneurship)을 제고시켜야 함. 정보·통신, 첨단기술산업의 육성과 창업 활성화는 궁극적으로 지역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산업의 성장을 촉진함

1) 거점지역별 창업기반의 확충

□ 개요

- 충청권은 수도권을 제외한 국내의 다른 지역에 비해 창업이 비교적 활발한 지역임. 이러한 창업의 열기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역적으로 미비된 창업기반의 확충이 필요함.

□ 주요내용

○ 창업기업 지원서비스의 공동개발 및 확산

- 창업기업 지원서비스를 공동 개발하여 그 중 효과가 뛰어난 서비스를 충청권 전체 BI에 확산시킴

○ 창업보육공간의 확충

- 현재 인큐베이터와 관련된 기능은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보육센터, 인터넷보육센터, 산업자원부의 TBI사업(신기술보육), 정보통신부의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및 정보통신산업 보육사업 등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음. 그 외에 TP도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내 대학이나 관련기관들이 중앙정부의 다양한 인큐베이터 건설지원책을 지역내에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생산시설을 요하지 않는 IT기업유치를 위한 빌딩형 BI의 구축을 고려

○ **포스트 인큐베이터 공간의 확충**

- 포스트 인큐베이터는 창업기간 완료후까지 지역내에 정착하지 못하는 기업중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공급하며 창업인큐베이터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충청권 벤처 펀드의 조성**

- 충청권내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500억원 규모의 충청권 공동 벤처 펀드를 조성함

2) 충청권 중견기업육성 연계체계 구축

□ 개요

- 지역별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해 유망중소기업을 대상으로한 지원제도 및 기구를 통합운영
- 중소기업 경영 및 마케팅지원 전문, 디자인, 기술·생산관련 지원 전문, 공장확장 인허가, 재정 금융, 주식시장 등록, 특허 등 지적재산권 등록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상호 연계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산·학·연·관 연계체계 구축
 - 기술혁신, 신기술도입, 디자인 등 다양한 전문분야의 지원을 위하여 대덕연구단지, 지역내 대학, 정부기관 등을 연계한 산·학·연·관협력체계를 구축

□ 주요내용

○ **충청권 중소기업지원기관 협의체 구성**

- 충청권내 자치단체, 정부의 중소기업지원기관, 대학,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광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전략적 차원에서 중소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

○ **중소기업지원기구간 정보공유 및 협력시스템 구축**

- 충청권내 중소기업지원체제의 강화와 통합적 지원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기관간 지원서비스, 지원전략, 지원업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단위 지원 및 전략적 합의를 위한 협력시스템을 구축

○ 기술적 선도기업의 육성

기술적으로 선도적 위치에 있는 기업의 육성은 시·도별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소위 「스타기업 육성」의 제도화·체계화를 통해 시행함. 스타기업의 선정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되 산·학·연이 결정하는 선발체계를 구축함. 그리고 선발된 기업에 대해서 관·학·연 공동지원체계를 구축함

4. 역외 투자 및 기업의 공동 유치

1) 기업 유치 및 지원체계 구축

□ 개요

-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의 인구비중을 감소시키고 수도권내 대기업을 지방이전 적극 추진을 제시하였음. 여기서 충청권은 이전대상 기업의 일차적인 대안입지로 검토될 수 있음. 충청권에서는 이전입지를 희망하는 업체를 적시에 수용할 수 있는 입지기반 정비와 3개시·도의 협력하에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동 홍보전략을 마련토록 해야할 것임
- 또한 외국인 기업은 대부분 국내 기업과 다른 경영기법을 지니고 있고, 보다 다양한 정보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산업계내에 새로운 경영문화의 전파가 가능함. 외국인 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기개발된 산업단지나 개발 추진중인 단지 일부구역에 추가로 외국인기업 전용산업단지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함

□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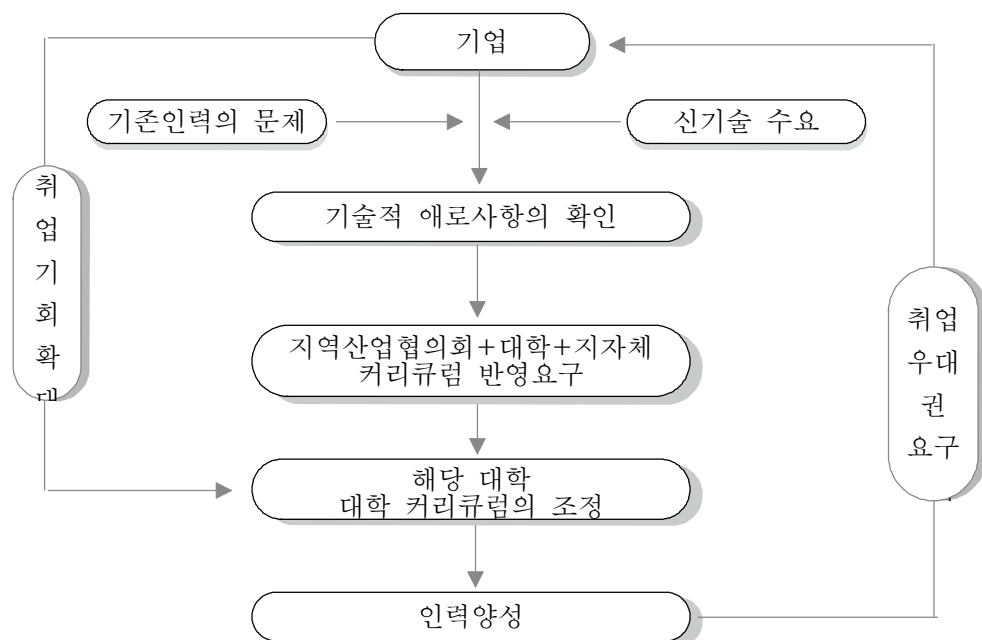
- 기업의 유치홍보를 위한 지역마케팅(place marketing) 추진
 - 수도권 및 해외기업의 활발한 유치를 위하여 공동의 지역마케팅을 실시함. 특히 시·도별 전략산업의 특화지대로 상징성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차별적인 지역마케팅을 추진함.
 - 인재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삶의질 개선을 추진하며 이를 홍보함. 구체적으로는 주택의 임대료, 문화시설, 전기 및 상하수도시설, 교육시설 등이 마케팅 대상이 될 수 있음

○ 기업마케팅 지원

- 기업의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판매전시장 설치·운영, 그리고 수출진흥을 통한 지역제품의 마케팅을 지원.

○ 수요지향적 교육·훈련(customized training/education)제도 구축

- 인적자원의 육성을 위해서는 권역 차원의 전문화된 교육훈련제도가 필요함. 교육훈련의 실시는 표준화된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수요에 따라 추진하며, 이외에 지역대학내에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을 수행할 훈련프로그램 개설 등의 협조를 요구함



〈그림5〉 주문형 교육과정 개념도

○ 이전기업 지원시설 기반확대

- 연구개발, 인력육성시설과 기반을 중앙정부 지원시책과 연계하여 확대하고, 이를 이전기업이 용이하게 활용가능하도록 매뉴얼을 개발하여 정보를 확산시킴

○ 이전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제도 도입

- 이전기업을 대상으로 이전비용 확보를 위한 장기저리의 자금원을 확보하고,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배분시 이전기업을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

○ **이전기업에 대한 탄력적 지원제도의 도입**

- 지역 이전기업의 지역산업에 대한 기여도, 고용창출력 및 기술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기업지원의 종류와 정도를 차등화하여 선도기업 유치를 촉진함. 전략산업분야의 선도기업에 대해서는 산업용지의 무상 또는 저가 임대 등을 포함하여 외국투자 기업 지원수준 이상의 파격적 지원이 가능토록 함

○ **지역내 기업에 대한 우선구매제도 도입**

- 기업의 지역내 정착을 유도하고, 타 지역기업의 충청권 입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내 기업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제도를 도입. 제도의 도입은 지방자치단체 주도하에 추진하되 우선구매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역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참여를 유도하며,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함

2) 충청권 국제경제교류 촉진 공조체계 구축

□ 개요

○ **단기적으로는 수출촉진 및 통상업무의 공조체제 구축**

- 충청권 수출촉진 전략 및 추진을 위한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수출전략산업의 선정 및 상품개발지원, 수출대상국별 마케팅 전담제 등 전략적 공조체제를 구축함. 자치단체별 수출진흥활동의 공조를 위한 해외사무소 공동설치 및 운영, 해외시장개척단 공동파견, 해외바이어 공동초청, 국내외 전시·박람회의 공동개최, 교역전문인력 풀의 활용을 확대

○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충청권 무역진흥공동기구 설치·운영**

- 충청권의 수출촉진 공조활동은 단기적으로 협의체 형식으로 추진하되 전문성의 확보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장기적으로는 충청권 수출촉진전문기구(충청권 무역투자공사)로 설치·운영함

□ 주요내용

○ 시·도지사 직할의 충청권 수출촉진행정협의회 구성

- 충청권 수출촉진 공조체제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시·도지사 직할의 추진력을 지닌 충청권 수출촉진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수출진흥 공동 전략, 공동진흥시책의 추진을 협의토록 함

○ 자치단체 공동출자를 통한 충청권 무역투자공사 설치·운영

- 충청권내 농산물의 수출촉진, 상품개발지원, 중소기업제품의 시장개척 및 수출촉진과 지원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권 수출 전담기구의 설치·운영을 추진
- 충청권 수출진흥기구는 자치단체의 공동출자 및 정부지원(중앙정부 수출지원기구)으로 설치·운영토록 하며, 지자체의 국제교류 전문인력 활용을 강화함. 기존의 자치단체 국제교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소단위 핵심조직 형태로 운영하면서 실적과 필요에 따라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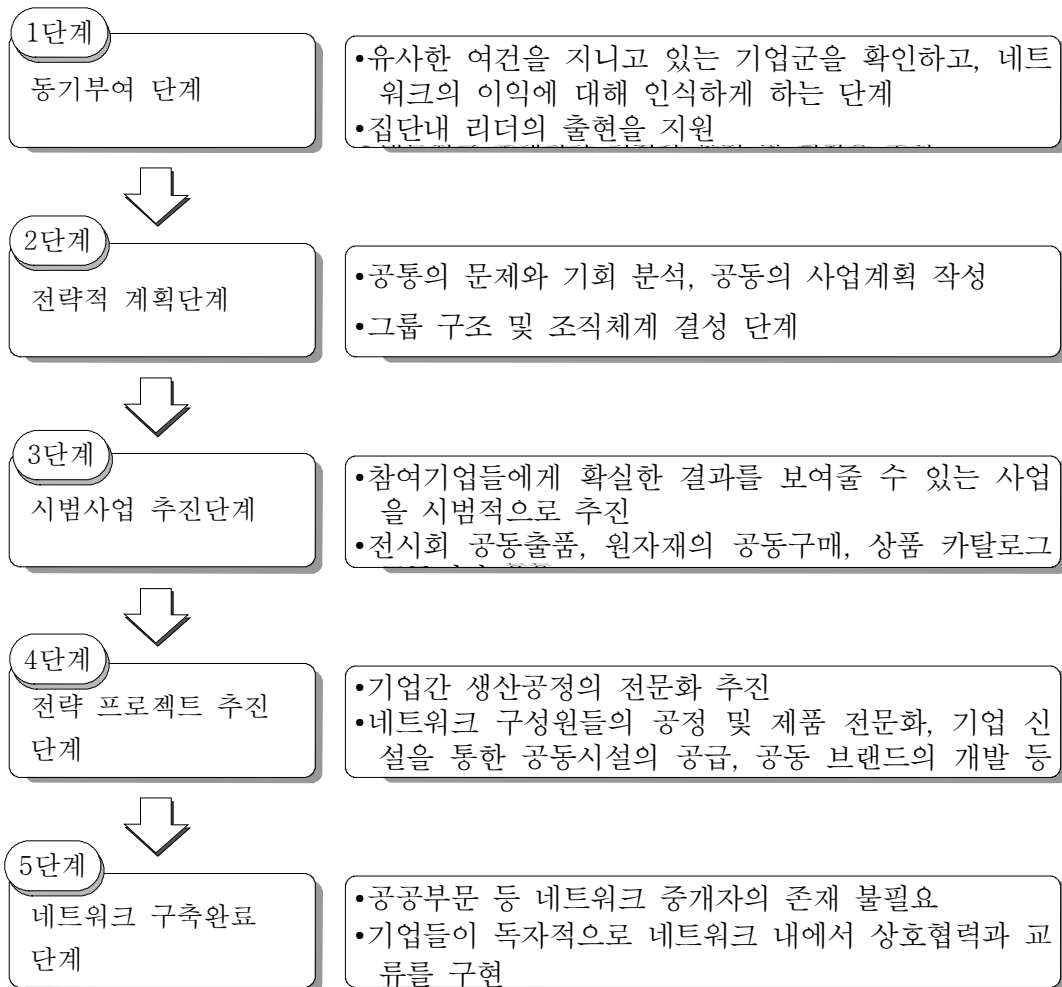
5. 협력네트워크 및 협력문화의 확산

- 충청권내 인접지역간 보완·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문화를 확산함으로써 공동발전 목표를 달성함.

1) 산업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문화 확산

□ 개요

- 기업간 네트워크 형성은 산업군집 형성과 지식기반산업의 성장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 기업간 네트워크는 공식적 제도의 산물이라기 보다는 문화의 산물이며, 네트워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개별기업의 경험에 의해 결정됨. 따라서 기업간 협력네트워크의 형성은 동태적인 인적 교류와 인식공유, 협력효과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제도적 기반의 확립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됨
- 기업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단계적 전략 추진
 - 준비단계:
 -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기업가, 과학자, 발명가, 전문가, 공무원, 투자자간 상호협력과 연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노력에 치중함
 - 초기형성단계:
 - 지역대학 및 상공회의소 등 민간부문 중심의 세미나 워크숍 등을 활용하여 과학자, 발명가, 기업인, 투자자, 창업 지원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간의 만남과 정보교환을 촉진할 수 있는 공식 및 비공식 교류기회를 확대함
 - 활성화 단계:
 - 기술개발 및 창업 아이디어 발표회, 전시회, 창업 투자 설명회, 상설 테크노마트, 분야별 포럼 등을 통하여 새로운 아이디어 및 신기술의 상품화 및 기업화 기회를 제공함



〈그림6〉 지역산업네트워크 형성의 추진단계

□ 주요내용

○ 네트워킹 문화확산

- 광역적인 차원에서 기업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자치단체간 협의에 의하여 마련함. 여기서 적용대상은 개별사업 보다는 동종산업간 광역교류협의회 구축, 광역이업종 교류회의 구축과 같은 교류기반 확충사업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상호간의 공감대를 확산시키는데 주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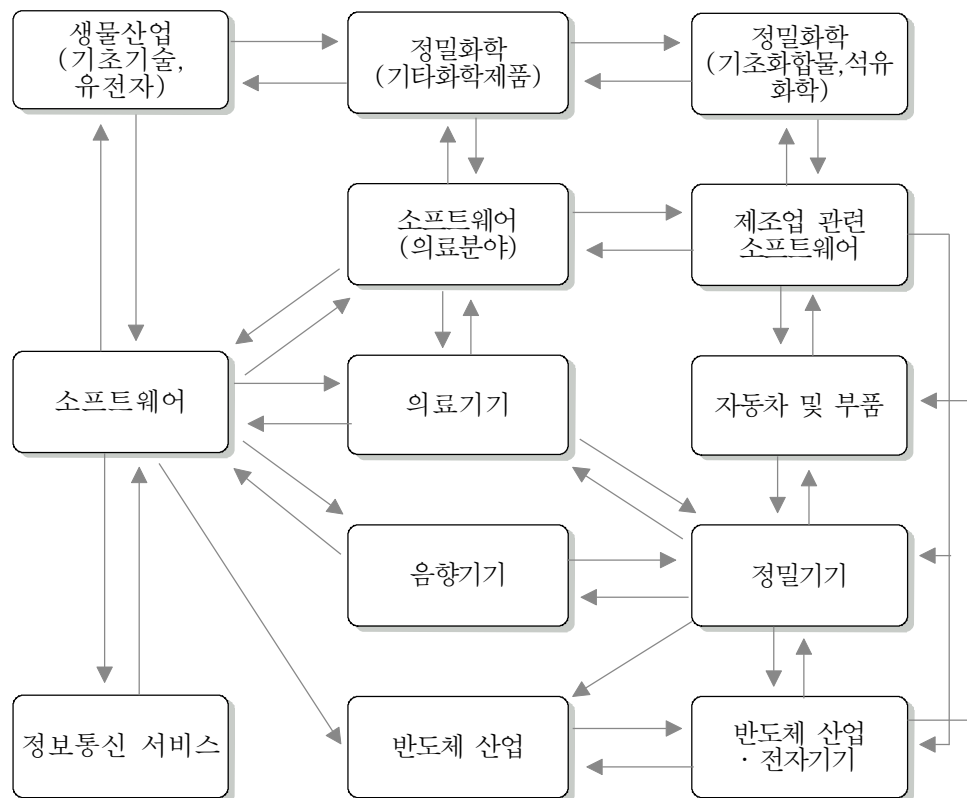
○ Influencer 의 육성

- 네트워크의 결속력은 지역차원의 미래Vision을 제시하는 First Level

Influencer와 기업간 이해조정과 협력기회 제공은 물론 정부와 지자체, 산업체와 연구기관, 대학 등 다양한 주체의 이해를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Second Level Influencer에 의해 결정됨.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을 Influencer로 육성하기 위한 전문화된 기구의 설립이 필요함. 현재 지역혁신협의회가 이러한 역할을 일부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네트워크 기능을 강화시켜나갈 필요가 있음

○ 동종 및 이업종간 기술·생산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 기업간 협력 네트워크 형성의 근본목적은 동종 및 이업종 산업내 기업간 기술개발 및 제품생산에 있어서 보완·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기업 측면에서 핵심역량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것임. 또한 지역적 차원에서는 연관산업 육성, 창업 등 기업여건 개선과 지역산업 활성화에 목적이 있음



〈그림7〉 산업간 상호의존성 개념도

- 충청권내 유망산업의 육성에 있어서 지역별 전략산업간 기능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광역적 산업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해야함. 이를 위하여 「광역이업종 교류회」의 결성을 통하여 정보교환, 신제품 및 신기술 발표회 등을 정례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타 부문의 정보가 지역간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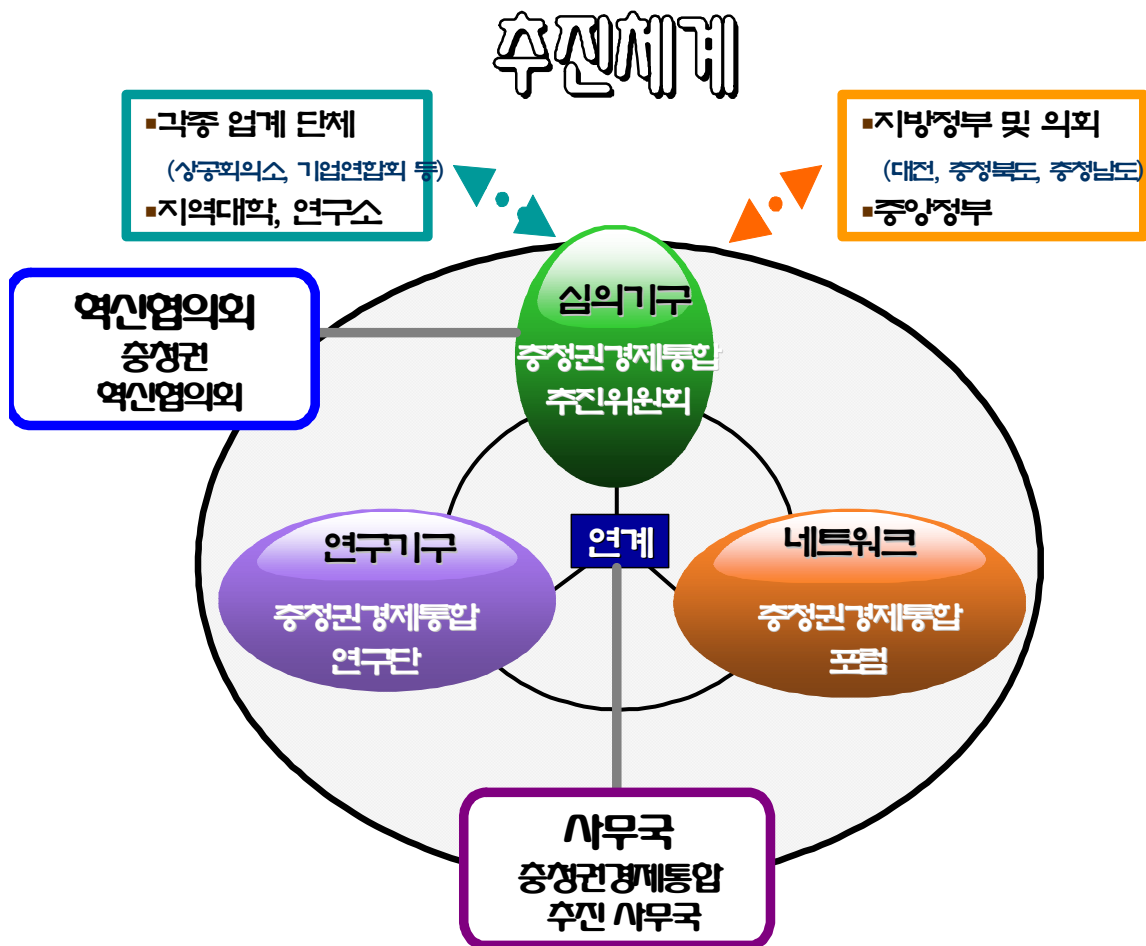
○ 공공기관, 대학연구소간 네트워크 구축

- 연구소간 네트워크 구축은 전략산업만이 아니라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하여도 매우 필요함. 단기적으로는 지역대학의 주요거점 연구소를 상호연계함으로써 설비의 공동이용이나 공동프로젝트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기업간 공동사업 지원제도의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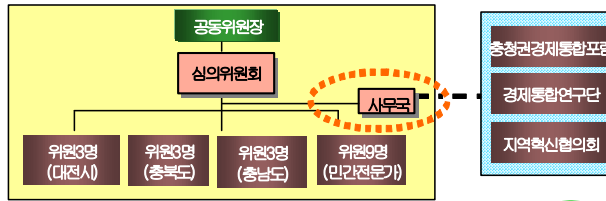
- 충청권내 기업간의 네트워크화 기반구축을 위하여 공동 홍보물 제작, 전시회의 공동 출품, 공동 마케팅, 공동기술 개발 등 지역내 기업간의 공동사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도입함.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우대 적용, 소요자금의 일부 보조, 저리자금의 융자 등의 다양한 재정지원과 함께 기업간 네트워크 및 교류 촉진을 위한 각종 기술 및 마케팅 포럼(forum)의 개최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

5. 협력적 추진체계의 구축



〈그림8〉 충청권 지역경제통합 추진체계 구축 모형

경제통합 추진위원회



목적

- 법령 및 기타 규정에 따라 경제통합과 관련된 계획, 정책, 실적 점검, 평가, 기타사항 등을 심의

기능 및 역할

- 충청권 경제의 통합발전과 관련된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의 심의
- 경제통합과 관련된 관련 조례의 제개정, 폐지에 관한 심의
- 경제통합의 운영과 예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

심의구

충청권 경제통합
추진위원회

구성

- 공동위원장은 시도 부가관장, 위원은 시도 기획실장, 경제통상국장 및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시도 기획관은 위원 겸 간사
- 회의는 윤번제로 운영, 정례회는 분기 1회,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

〈그림9〉 충청권 지역경제통합 추진위원회

IV. 충청권 공동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

□ 지역발전 기반조성을 위해 정부가 선도적 역할

- 기반구축에는 재정을 투자하고, 수익사업은 민자를 유치 한다는 원칙에 따라 정부가 주요 인프라 및 산업기반 조성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 수행
 - 인 프 라 구축 : 공항, 항만, 도로 등
 - 산업기반 조성 : 융합산업단지 조성, 성장거점촉진지구 조성, 의료특구 등

□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강화

- 기반조성과 함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제공
 - 투자환경 개선 : 조세감면, 개발사업 지원, 고용 및 노사환경 개선 등
 - 생활여건 개선 : 의료, 교육, 관광 등에 대한 규제완화 등

□ 지역내 여타 발전프로젝트와의 차별화 및 상호 연계

- 대덕 R&D특구, 오송바이오밸리, 행정중심복합도시와의 역할분담 및 상호 연계를 통해 상생과 시너지효과 제고

□ 중장기 발전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지역내 주요 인프라 구축, 산업기반, 시장형성 등을 고려 하여 중장기 시각에서 단계적 발전전략 추진
- 충청권 종합발전 구상의 안정적 추진기반으로서 「충청권 성장거점 촉진지구 특별법」(가칭) 제정